2012
November 2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

포커스

EU의 나노물질 규제 검토

정책동향

[미국] 미 법무부, 독 베링거에 허위광고 혐의 9천5백만불 벌금 부과
[영국] 영 국립보건연구소, 협심증 치료제 '프로코라란' 보험 급여 권고
[일본] 일 민주 등 3당, iPS 이용 '재생의료 추진법안' 제정 합의
[중동] 이란, 서방 경제제재로 6백만 환자 의약품 보급 차질

산업동향

[미국] 미 GE, 일본에서 고령자용 의료기기 개발 확대
[글로벌] 영 AZ, 미 아이언우드와 중국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시장 진출
[아시아] 스위스 노바티스, 싱가포르에 첨단 생명공학 의약품 공장 건설
[독일] 독 메르세데스 벤츠, 여성용 향수 런칭

신규보고서

[글로벌] '12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 2천3백억불 규모
[일본] 일본, 민관 협력 통한 해외 헬스케어 시장 진출 필요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

Contents

포커스

- EU의 나노물질 규제 검토 ····· 1

정책동향

- [미국] 미 법무부, 독 베링거에 허위광고 혐의 9천5백만불 벌금 부과 ····· 5
- [영국] 영 국립보건연구소, 협심증 치료제 '프로코라란' 보험 급여 권고 ····· 5
- [EU] 이탈리아 대법원, 휴대폰의 뇌종양 유발 효과 인정 ····· 6
- [일본] 일 민주 등 3당, iPS 이용 '재생의료 추진법안' 제정 합의 ····· 6
- [일본] 일 경제산업성, 의료기업 해외 신흥시장 진출 적극 지원 ····· 7
- [일본] 일본, 폐암 진단 5년후 생존율 41% 불과 ····· 7
- [중국] 중국 60세 이상 인구, '53년 5억명 … 한자녀 정책 수정 불가피 ····· 8
- [중동] 이란, 서방 경제제재로 6백만 환자 의약품 보급 차질 ····· 8

산업동향

- [미국] 미 화이자, 캐나다 인력 3백명 감원 ····· 9
- [미국] 미 GE, 일본에서 고령자용 의료기기 개발 확대 ····· 9
- [미국] 미 앨러간, 비만 사업 부문 매각 추진 ····· 10
- [영국] 영 브래드포드대, 녹내장 치료제 '비마토프로스트' 발모 효과 확인 ····· 10
- [글로벌] 영 AZ, 미 아이언우드와 중국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시장 진출 ····· 11
- [미국] 미 펜실베이니아대, "후각 상실은 신경질환 발생 징후" ····· 11
- [아시아] 스위스 노바티스, 싱가포르에 첨단 생명공학 의약품 공장 건설 ····· 12
- [미국] 미 M3인포메이션, 정신건강 점검 앱 출시 ····· 12
- [일본] 일 다케다, 아이패드 연동 정보제공 도구 '초소형 MR군' 개발 ····· 13
- [미국] 화장품 함유 화학물질, 조기 폐경 유도 가능성 ····· 13
- [글로벌] 미 P&G,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 3위 ····· 14
- [독일] 독 메르세데스 벤츠, 여성용 향수 런칭 ····· 14

신규보고서

- [글로벌] '12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 2천3백억불 규모 ····· 15
- [일본] 일본, 민관 협력 통한 해외 헬스케어 시장 진출 필요 ····· 16

포커스

EU의 나노물질 규제 검토

바이오 의약품과 화장품 등 제작에 사용 가능한 나노물질은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한 동시에 안전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 EU집행위원회는 '08년에 이어 제 2차 나노물질 규제 검토를 실시하고, '12년 10월 '나노물질의 사례별 평가 제안(Nanomaterials: Commission proposes case by case approach to assessment)'을 발표. 본 보고서에서는 나노물질 현황 및 위험성, 나노물질 규제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이 고찰

□ 나노물질 규제 검토 배경

○ **(배경)** 나노물질이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안전성에 관한 우려감도 증대함에 따라 EU집행위는 '08년에 이어 제 2차 나노물질 규제 검토를 실시

- 관련 법 전체를 대상으로 △현행법의 나노물질 안전 사용 보장 여부 △나노물질 안전 사용과 관련한 규제의 부적절성 △나노물질의 혁신·경제성장·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나노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 **(과제)** 나노물질의 위해성 추적·특성 정의·분석을 위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내는 한편, 나노물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발할 필요

- **(리스크)** 특정한 나노물질이나 특정한 사용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에 차이가 있으므로 리스크 평가는 사례별로 적절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
- **(REACH)**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는 나노물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적의 프레임워크인 것으로 평가되나, 나노물질의 특정 요건에 관한 추가 작업이 요구

* EU집행위는 REACH 부속서에 명시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유럽화학품청(ECHA)으로 하여금 '13년 이후 나노물질 등록 지침을 추가로 개발하도록 할 예정

- **(정보)** 나노물질 관련 정보의 가용성 확대를 위한 웹 플랫폼을 출범시키는 한편, 정보의 투명성과 규제 감독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 개발을 위해 영향 평가를 시행할 계획

□ 나노물질 현황 및 위험성

○ **(나노물질 현황)**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나노물질은 연간 1천1백만 톤, 시장 가치로는 약 2백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나노물질 및 관련 이슈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나노물질은 ①유통량이 많은 '전통적' 나노물질 ②유통량은 소량이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나노물질 ③특수한 기술적 응용을 위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나노물질 등으로 구분이 가능

① 유통량이 많은 '전통적' 나노물질 : 카본블랙, 무정형합성실리카 등

- 타이어·폴리머 필러, 종이·페인트·접착제의 미끄럼 방지, 식품 및 치약 등의 응고 방지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② 유통량은 소량이나 사용이 점차 확대되는 나노물질 : 나노이산화티타늄/나노이산화아연, 탄소나노튜브, 플러렌, 은나노

- 나노이산화티타늄/나노이산화아연은 자외선차단제, 페인트 및 광택제 등에서 자외선 차단 필터로 사용
- 탄소나노튜브는 플라스틱 전기전도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물질로 디스크 드라이브 컴포넌트나 자동차 플라스틱 연로 라인·방현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며, 이외에 폴리머 첨가제, 연료전지 등에도 응용
- 플러렌은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공과 같이 특정한 강도를 가져야 하는 제품에 응용되며 이외에 화장품, 연료, 태양전지 등에도 응용

  * 높은 비용 때문에 시장성은 높지 않은 편

- 은나노는 섬유의 살균 및 악취 방지 등에 사용되는데,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전세계적 사용량은 약 20톤에 불과

③ 특수한 기술적 응용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나노물질

- 촉매제, 전자제품, 솔라 패널,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나노물질이 개발 중

  *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진단, 종양 치료를 위한 나노물질 개발이 추진

○ **(나노물질 위험성)** 나노물질 사용이 어떤 수준을 넘어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할 정도의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미비

- 신종보건위험과학위원회(SCENIHR)가 나노물질을 '독성을 갖거나 또는 독성을 갖지 않는 화학물질/물질'로 규정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른 화학물질과 같이 나노물질이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사용될 때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

  * 나노물질이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사용량이 과연 소비자나 나노물질 취급자들이 일상 환경에서 노출되는 나노물질의 양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지속

- 복합재료나 일상 환경에 존재하는 나노물질에 대한 추적 방식이나 모델이 거의 없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나노물질과 제조된 나노물질의 구분도 어렵기 때문에 나노물질 노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

□ 나노물질 규제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

○ **(규제 기관)** 나노물질 규제는 REACH 주관 기관인 ECHA를 비롯해 식품·사료 분야에서는 유럽식품안전청(EFSA), 의약품 분야에서는 유럽의약품청(EMA)이 나노물질 규제에 관여

- '11년 EFSA는 식품·사료에 대한 나노물질 위험성 평가 지침을 마련

  * 동 지침에서는 ① 식품·사료에 사용되는 인공 나노물질에 대해 특성정의 요건 ② 나노물질 사용 중 인간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규명하고 특성을 정의하기 위한 접근방식 테스팅 등을 명시

- EMA는 '06년부터 의약품에 대한 나노기술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나노기술을 적용한 약 20개의 의약품을 승인

○ **(규제 제도)** 나노물질은 다른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REACH가 적용

- 역내에서 연간 1톤 이상의 나노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해당 나노물질을 ECHA에 등록하고, 공급망 전체에 걸쳐 안전한 사용을 보장

* 나노물질이 '80년대 작성된 '기존 상업용 화학물질(EINCES)'에 포함되지 않는 신물질일 경우 REACH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현재 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양이 생산되어 판매되는 나노물질은 20~30개 정도이며, 이 중 많은 수가 REACH에 등록이 된 것으로 추정

* 현행 REACH 제도 하에서 나노 형태를 고려한 등록 서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 나노와 비나노 형태를 동시에 취하는 물질의 경우 등록 서류 상에서 나노물질로 취급할 것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나노물질 등록 건수 추정이 불가능

*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고 소량 생산되어 거의 기술적으로만 적용되는 나노입자들도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러한 나노입자들이 포함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지 혹은 연구개발에만 사용되는지도 파악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

- EU집행위는 ECHA와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 '12년 2월 자발적 등록과 관련해 7개의 물질을 나노물질로 선정

○ **(개선 방향)** 나노물질에 대한 지침과 나노물질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 EU집행위는 나노물질 등록서류 상에서 특정 나노물질 위험성 관리 방안이 명시될 수 있도록 REACH 부속서 개정을 추진

- ECHA는 나노물질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기존에 등록된 나노물질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

- 화장품, 살생물제, 식품, 식품접촉물질 등 나노물질 노출이 많은 소비재 관련 규정을 검토해 필요시 추가적 입법 활동을 시행

* 화장품·살생물제·식품 라벨링 규정 등을 통해 위험성과는 별개로 제품에 나노물질 포함 여부 명시도 추진이 가능

* 의약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경우 의료 관련 규정 적용 대상으로 종양 치료제를 포함해 다수의 나노의약품이 이미 승인되었으며, 관련 리스크도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상황

- 작업장에서의 나노물질에 대한 규정, 폐기물·물·대기 등 환경 관련 나노물질 규정도 필요

정책동향

미 법무부, 독 베링거에 허위광고 혐의 9천5백만불 벌금 부과

○ 미국 법무부는 승인받지 않은 적응증과 관련해 **허위광고한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에 9천5백만불의 벌금**을 부과

- 법무부는 베링거가 뇌졸중 예방제 **아그레녹스**(Aggrenox),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아트로벤트**(Atrovent)**· 콤비벤트**(Combivent), 항고혈압제 **미카르디스**(Micardis)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지적

  * 베링거는 아그레녹스의 경우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차 뇌졸중 예방제로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심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며, BMS의 플라빅스(Plavix)보다 효능이 뛰어나다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광고를 전개

- 이에 대해 베링거는 허위광고 혐의를 인정, 법무부의 **벌금 납부 명령을 수용**하기로 결정 [Pharma Times, 2012.10.29]

영 국립보건연구소, 협심증 치료제 '프로코라란' 보험 급여 권고

○ 영국 국립보건연구소(NICE)는 프랑스 세르비에(SERVIER)의 협심증 치료제 **'프로코라란**(Procoralan, **성분명 : 이바브라딘**)'이 만성 심부전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정부에 **국민건강보험**(NHS) **급여 적용**을 권고

- NICE는 심장박동수가 분당 75회 이상이고 좌심실 박출계수가 35% 이하인 만성 심부전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프로코라란이 효과적이라고 강조

- NICE는 또 프로코라란이 **ACE 억제제**(ACE inhibitors), **베타차단제**(beta-blockers), **알도스테론 길항제**(aldosterone antagonists) **등 기존 표준 요법제들과도 병용**될 수 있다고 설명

  * 다만 이 때는 4주간의 안정기를 거친 이후 전문의의 지시를 따르도록 권유

- 프로코라란은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위약군 복용군에 비해 입원율과 사망률을 25% 정도 낮추는 것으로 확인

- 한편 현재 영국 내 심부전 환자는 90만명 정도로 파악 [MSN News, 2012.10.22]

이탈리아 대법원, 휴대폰의 뇌종양 유발 효과 인정

○ 이탈리아 대법원은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뇌종양이 발생했다며 휴대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60세 사업가에 승소 판결을 결정

- 대법원은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양성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며 **휴대폰 사용과 뇌종양 사이 관련성**을 인정

  * 원고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고객과 거래하는 12년 동안 매일 6시간 정도 휴대폰을 사용해 뇌신경에 종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사는 과도한 휴대폰 사용이 종양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증언한 의사를 재판에 출석

-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는 휴대폰과 뇌종양 사이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 판결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농후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휴대폰을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

[ProCon, 2012.10.26]

일 민주 등 3당, iPS 이용 '재생의료 추진법안' 제정 합의

○ 일본의 민주, 자민, 공명 3당은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재생의료 추진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

- 동 법안은 일본 국민이 재생의료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iPS 세포의 연구에서 실용화까지 책임지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제도를 구비하고 재정 및 세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 구체적으로는 **△대학과 연구소 R&D에 보조금 지급 △첨단기술 기업의 R&D 장려 △전문인력 육성 △재생의료 제품의 조기 승인 및 효율적 심사체제 구축** 등

- 민주 등 3당은 iPS 세포의 암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생명윤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안에 명기할 방침

-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재생전략에서 재생의료 실용화 추진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으며, 재생의료 제품 개발을 앞당기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3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企業法務, 2012.10.25]

일 경제산업성, 의료기업 해외 신흥시장 진출 적극 지원

○ 일본 경제산업성은 생활습관병 치료나 암 치료 등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의 **의료기업이 해외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경제산업성은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브라질, 중국, 이라크 등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현지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 미팅을 주선**할 방침
- 경제산업성은 전체 국민의 40% 정도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직장 혹은 지역 건강보험과 유사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할 예정
- 또 방사선 의료 수요가 큰 **사우디에서는 일본의 전문의가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네트워크 형 방사선 의료 시스템'을 미쓰비시와 NEC 등이 구축**할 수 있도록 현지 보건부 관계자와 방안을 논의할 방침
- 이와 함께 지진이 빈번한 **터키에는 일본 업체가 초음파기기와 채혈기구 등을 수출하고 대형병원 건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日本經濟新聞, 2012.10.25]

일본, 폐암 진단 5년후 생존율 41% 불과

○ 일본 국립암연구센터가 공개한 암 진단 5년 이후 생존율 자료에 의하면 **폐암의 경우 생존율이 40.6%에 불과**하고 치료 기관에 따라 **편차도 심한 것**으로 확인

- 암연구센터는 30개 암치료기관으로부터 취합한 '01~'03년 10만 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생존율을 분석했으며, 이번 작업은 '07년과 '08년에 이어 3회째
- **폐암 생존율**은 치료기관에 따라 24.8(군마현립암센터)~58.1%(시코쿠암센터) 평균 40.6%로, 33.3% 포인트의 편차를 기록
- **위암 생존율**은 56.2~80.2%(평균 70.4%), **대장암** 64.0~81.4%(73.4%), **자궁경부암** 65.8~84.4%(76.3%), **유방암**은 84.1~95.4%(90.0%)로 집계

[日本經濟新聞, 2012.10.23]

중국 60세 이상 인구, '53년 5억명 … 한자녀 정책 수정 불가피

○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오는 '53년 5억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융(Zhu Yong) 중국고령화전국위원회(China National Committee On Aging) 부위원장이 유엔인구기금(UNFPA)과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HAI)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망

- 주 부위원장은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1억8천5백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 수준이지만 오는 '15년에는 2억2천1백만명 '53년에는 4억8천7백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5%가 될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70년대 후반부터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한 데 이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한 자녀 정책을 수정해 젊은 층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UNFPA는 세미나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9명당 1명 정도이지만 '50년에는 5명중 1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ZeeNews, 2012.10.31]

이란, 서방 경제제재로 6백만 환자 의약품 보급 차질

○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이란 내 6백만 환자가 의약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파테메 하세미(Fatemeh Hashemi) 특수질환재단 이사장이 관영 이란데일리와의 회견에서 주장

- 하세미 이사장은 서방의 경제제재에 의약품과 의료장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간 결제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의약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품귀 현상까지 발생**해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

  * 지난 3개월 사이 이란에서 생산된 의약품 가격은 15~20% 인상됐으며, 수입 의약품 가격은 20~80% 폭등

- 이란 측 고위인사가 서방의 경제제재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인도주의에 호소해 서방측 제재를 풀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

[Channel News Asia, 2012.10.22]

산업동향

미 화이자, 캐나다 인력 3백명 감원

○ 미국 화이자(Pfizer)는 비용절감을 위해 판매 및 마케팅 부서를 중심으로 **캐나다 지사 전체 인력의 11% 정도인 3백명의 임직원을 감원**하기로 결정

- 이번 감원은 콜레스토롤 저하제 **리피토(Lipitor) 등 간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
- 화이자는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제품과의 경쟁, 지난 '09년 경쟁업체 와이어스(Wyeth) 합병 여파에 따른 사업 재편 등으로 지난 수년간 전 세계에서 판매와 마케팅을 중심으로 조직을 간소화하는 구조조정을 실시
- 그러나 화이자는 이번 감원에 앞서 몬트리올에 위치한 제조·유통 센터 설비 개선 작업을 완료
- 한편 **캐나다 제약업계에는 최근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감원에 대한 공포가 확산**

* 최근 2년간 캐나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는 132명,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 100명, J&J 125명, 와이어스 에이어스트(Wyeth-Ayerst) 150명 머크(Merck)는 200명을 감원 [Globe and Mail, 2012.10.28]

미 GE, 일본에서 고령자용 의료기기 개발 확대

○ 미국 GE는 **일본에서 고령자들을 타깃으로 한 의료기기 개발을 확대**할 계획

- 이를 위해 기능은 개선되고 검사 시간은 단축된 첨단 컴퓨터단층촬영(CT) 장치와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등을 생산할 방침
- 이번 방침은 지난 '06년 선진국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고령자용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검증을 받은 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석
- 한편 '11년 GE의 의료기기 매출은 181억불로 세계 2위였으며, CT 등 초음파 진단장치의 점유율은 세계 1위 [日本經濟新聞, 2012.10.24]

미 앨러간, 비만 사업 부문 매각 추진

○ 미국 앨러간(Allergan)은 랩-밴드(Lap-Band) 등 **체중감량 장비를 생산하는 비만 사업부를 매각**할 계획

- 앨러간은 향후 3~5년 내 15% 정도의 수익 증가율 달성을 위해서는 매출이 감소하는 부서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비만 사업부 매각을 결정
- 미국 비만기기 시장은 한때 앨러간 전체 매출의 1/3 정도를 담당했으나 현재는 매우 미미한(negligible) 수준으로 위축
- **비만 사업부 매출은 지난 '08년 2억9천6백만불로 정점에 오른 후 '11년 2억310만불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1억6천만불로 추가 하락**이 예상
- 특히 **랩-밴드 기기의 체중 감량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11년 벨기에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밴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약 절반이 부식으로 인해 나중에 기기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

* 앨러간은 올 초 미국 의회의 비판과 법률소송에 휘말려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랩-밴드 시장 진출 계획을 철회 [Businessweek, 2012.10.30]

영 브래드포드대, 녹내장 치료제 '비마토프로스트' 발모 효과 확인

○ 영국 브래드포드대 연구팀은 앨러간이 미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받은 **녹내장 치료제 '비마토프로스트(bimatoprost)'에 모발 재생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미국실험생물학학회연합회저널(FASEB Journal)을 통해 발표

- 연구팀은 기관배양(organ culture)을 통해 얻은 모낭과 인간의 두피에서 직접 채취한 모낭에 비마토프로스트를 투여하자 모발이 생성되었으며,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모발이 빠진 부위에 투여했을 때 모발이 자라났다고 설명
- **비마토프로스트는 속눈썹을 자라게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모발을 재생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
-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대머리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News Medical, 2012.10.29]

영 AZ, 미 아이언우드와 중국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시장 진출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가 미 아이언우드 파마슈티컬스(Ironwood Pharmaceuticals)와 공동으로 **중국시장을 염두에 둔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를 공동 개발· 마케팅**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

- AZ는 계약성사금 2천5백만불을 비롯해 매출 목표치 달성 시 1억2천5백만불 등 **최대 1억5천만불을 아이언우드에 지급**하기로 합의
-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마케팅에 따른 손익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AZ가 55%를 갖고, 이후부터는 50대 50으로 배분**하는데도 합의
- 아이언우드는 지난 8월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변비를 동반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및 만성 특발성 변비 치료제 '린제스(Linzess, 성분명 : 리나클로타이드)'를 승인받았으며, 그 전인 5월에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

* 린제스는 최초의 구아닐산 사이클라제-3(GC-C) 촉진제로 주목받고 있는 신약

- 한편 중국에서는 기능성 위장장애의 하나로 변비가 동반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별다른 치료제가 시판되지 않고 있는 상황 [PharmaBiz, 2012.10.25]

미 펜실베이니아대, "후각 상실은 신경질환 발생 징후"

○ 미 펜실베이니아대학 연구팀은 **후각을 상실하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등 신경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플로스원(PLoS One)을 통해 발표

- 연구팀은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환자 27명과 건강한 대조군 27명, 다발성근육염(autoimmune inflammatory muscle disease)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후각 능력을 시험
- 그 결과, 중증근무력증 환자와 다발성근육염 환자는 대조군보다 후각 능력이 약했으며, 다발성근육염 환자의 경우 후각 능력이 정상 범위에도 미달
- 이번 연구 결과는 중증근무력증과 다발성근육염이 신경계 뿐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쳐 후각 기능이 상실되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 뇌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Medical News Today, 2012.10.21]

스위스 노바티스, 싱가포르에 첨단 생명공학 의약품 공장 건설

○ 스위스 노바티스(Novartis)는 5억불을 투자, **싱가포르 서부 투아스(Tuas) 지역에 첨단 생명공학 의약품 공장을 건설**할 계획

- 신규 공장은 '13년 1분기 중 착공에 들어가 '16년말 준공될 예정
- 신규 공장은 **모노클로날 항체 약물과 같은 유망신약들의 임상시험을 뒷받침하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호흡기계 질환 치료제·항암제 등을 생산**
- 노바티스는 현재 보유한 제품 파이프라인의 4분의 1 정도가 생물학적 제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새 공장이 완공되면 이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
- 노바티스는 **생물의학 분야에서의 강한 존재감과 정보력, 숙련된 노동력, 성장을 거듭하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싱가포르를 첨단 의약품 공장 건설 기지로 선정했다고 설명

* 노바티스는 현재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안과질환 치료제 사업부, 열대병연구소 등을 보유

[FiercePharma, 2012.10.31]

미 M3인포메이션, 정신건강 점검 앱 출시

○ 미국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M3인포메이션이 **스마트폰을 통해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앱인 **'핫스마이M3(WhatsMyM3)'**를 출시

- 이 앱은 개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우울증· 불안· 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검사를 스스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정신건강 전문가와 임상의들이 개발에 참여해 검사의 정확성을 제고
- 핫스마이M3는 사용자가 3분 정도 소요되는 질문에 응답하면 사용자뿐 아니라 사용자의 주치의가 사용자의 전반적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수가 제시
- 이 앱은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간체자)·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등 **12개 언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튠스와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

[Market Watch, 2012.10.25]

일 다케다, 아이패드 연동 정보제공 도구 '초소형 MR군' 개발

○ 일본 다케다약품(武田薬品)과 엠쓰리(エムスリ)는 다케다가 의약정보담당자(MR)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수록된 아이패드(iPad)와 엠쓰리의 영업지원 서비스 MR군이 연동된 새로운 정보제공 도구 **'초소형 MR군(てのひらMR君)'**을 공동 개발

- 초소형 MR군은 **의사들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목표로, **의사들 사이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각 의사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보유
- 한편 다케다약품은 지난 '11년 5월 아이패드에 MR 정보를 수록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생활습관병· 중추신경계질환· 정형외과 등 부문에서 MR군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Mixonline, 2012.10.24]

화장품 함유 화학물질, 조기 폐경 유도 가능성

○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색조화장품이나 헤어스프레이, 생활용품 등에 함유된 각종 **화학물질들이 여성의 폐경기 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생식의학회(ASRM) 제 68차 학술회의에서 발표

- 연구팀은 5천7백명의 여성들로부터 혈액 혹은 소변 샘플을 채취한 뒤 프탈레이트(phthalate) 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진행한 결과 **프탈레이트 수치가 높은 여성들은 폐경기 진입이 일반 여성보다 평균 2년 정도 빠른 것**을 발견

* 일반적으로 폐경기는 51세 정도에 시작되지만, 다량의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여성들은 이 시기가 49세 무렵으로 앞당겨졌으며 심지어 15년 정도 빨라져 30대 중반에 폐경기에 진입한 여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

- 조기 폐경이 뇌졸중, 뇌출혈, 심장병, 골질환 등과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번 연구는 상당한 시사점을 보유
- 연구팀은 화장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들이 여성의 생식력에 교란을 유발해 폐경을 앞당기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기 폐경은 난소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Huffington Post, 2012.10.29]

미 P&G,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 3위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웨덴 유니버섬 글로벌(Universum Global)의 ''12년 세계 최고의 매력적 기업(The World's Most Attractive Employers 2012) 순위에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업체 **P&G가 사상 처음으로 '비즈니스' 부문 3위**에 랭크

* 유니버섬 글로벌은 전세계 14만4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와 '기술'의 두 가지 기준으로 12개국(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스페인, 영국, 미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50위까지 발표

- P&G 이외 비즈니스 부문 상위에 랭크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업체로는 **로레알(12위), LVMH(25위), 유니레버(27위)**
- **기술 부문에서도 P&G는 10위에 올랐으며, J&J(13위) 유니레버(28위) 로레알(29위) 화이자(30위)도 랭크** [Universumglobal, 2012.10.20]

독 메르세데스 벤츠, 여성용 향수 런칭

○ 독일의 고급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가 프랑스 칸에서 첫 번째 **여성용 향수를 런칭**하는 행사를 개최

- 향수는 베르가못(bergamot)과 복숭아의 신선한 향기를 톱노트(top note)로, 미모사(mimosa)를 중심으로 한 꽃향기를 미들노트(middle note)로, 패출리(patchouli)와 사향과 바닐라의 지속적이면서 강력한 향을 베이스노트(base note)로 채택

- 향수병은 투명하고 심플한 선과 은색 마개로 디자인되어 현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속이 트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여성의 모습을 투영
-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여성용 향수를 **'13년 출시**할 예정

-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 '11년 프랑스 향수업체 INCC와 제휴한 데 이어 올해 1/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한 남성용 향수를 시판 [Bornrich, 2012.10.23]

신규보고서

'12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 2천3백억불 규모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미국의 IBIS월드는 '12년 9월 발표한 '글로벌 화장품 제조 시장(Global Cosmetics Manufacturing Market)'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를 2천333억불로 전망**

- 보고서는 글로벌 화장품 업계가 경기침체 속에서도 **최근 5년간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는 '17년까지 5년 동안에도 '건강한 성장률(healthy rate)'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지난 '09년 글로벌 화장품 업계의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데 불과했으며, 매출이익률 또한 7.5%로 '07년도의 10.7%를 하회

- 이와 같이 저조한 실적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경기침체가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화장품 업계도 직접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업계는 **신흥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 올해는 매출이 전년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 화장품 업계가 천연 화장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변화된 취향에 부응하기 위해 샴푸, 메이크업, 로션 등에서 신제품들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위기를 극복하게 된 배경
- 화장품 업계는 날로 변화하는 시장과 트렌드 속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해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으며, **향후에도 고도의 혁신성과 새로운 틈새·개량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면서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전**망
- 특히 **메이저 업체**들은 시장규모를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업체**들이 소수의 틈새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힘을 쏟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
- 이와 함께 **△기업 M&A와 진출지역 확대 △제품 다양화 △시장 세분화 △ 친환경 공정을 비롯한 신기술 개발** 등이 향후 5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화장품 시장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일본, 민관 협력 통한 해외 헬스케어 시장 진출 필요

○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는 '12년 10월 발표한 '헬스케어 관련산업 해외시장을 노려라(ヘルスケア関連産業で海外市場をねらえ)'에서 **의료관계 기업이 해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것을 강조

- 노무라연구소는 오는 '20년 일본 기업들이 20조엔 규모의 신규 해외시장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일본 의료관련 산업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 국내에는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 일본은 슈퍼닥터(Super Doctor)를 대거 배출하는 등 개인의 의료기술 수준은 높은 반면, 기업 차원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해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의료관계 기업이 협력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정부 및 의료기관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의약품 판촉 혹은 의료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는 등 해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이 제기
- 일본 기업들은 오는 '20년 국내외에서 50조엔 규모의 신규시장(국내 30조엔, 해외 20조엔)을 창출하면서 28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해외시장 특히 해외 헬스케어 시장 진출로 인한 효과가 기대

* 일본 노다 내각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수립한 '일본재생전략'에 7개 신성장 부문을 명시하면서 보건과 돌봄 등 의료 관련 산업을 포함

○ 일본 정부가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일본 의료관계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메디컬 엑셀런스 재팬**(Medical Excellence JAPAN : MEJ)'을 설립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

- MEJ는 일본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련 서비스 업체 등의 해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